

The Gospel of Mark: Sermon Notes

Sermon 9

Title: "Questions about fasting"

Scripture: Mark 2:18-22

Date preached: October 23rd 2022

Scripture: Mark 2:18-22

18 The disciples of John and of the Pharisees were fasting. Then they came and said to Him, "Why do the disciples of John and of the Pharisees fast, but Your disciples do not fast?"

19 And Jesus said to them, "Can the friend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they cannot fast. 20 But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in those days. 21 No one sews a piece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r else the new piece pulls away from the old, and the tear is made worse. 22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r else the new wine bursts the wineskins, the wine is spilled, and the wineskins are ruined. 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19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가 없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Review

Before we consider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Jesus was travelling around the region of Galilee teaching and preaching to the people as He went. One day whilst He is walking close to the Sea of Galilee he spies Levi the tax collector or publican. Levi is perhaps better known to us by the name Matthew. When the Lord sees him Levi is sitting in his tax collecting booth. Although it is not specified in scripture this may well have been situated along the main highway that ran through Galilee. This important highway went from Damascus through Capernaum and then down the coast of Israel and on into Egypt. It was therefore an important trade route and the ideal place to position yourself so as to be able to collect the many taxes that were levied by the Romans. As I said last time tax collectors were despised. They were shunned and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Jewish life. This was because they were collecting money for the Romans who had conquered and were oppressing the Jews.

Therefore anyone working as a tax collector was rightly regarded as a traitor. This in itself would have been bad enough but tax collectors were often ruthless, dishonest crooks. They would bully people and extract from them more money than was legally due.

Given all of this we may wonder why anyone would want to be a tax collector. The answer to this is greed. Becoming a tax collector was very lucrative. You were guaranteed to make a lot of money. Because of this there was never any shortage of people hoping to get a Roman contract and to become a tax collector.

We may then wonder given the reputation of publicans what drew the Lord Jesus to Levi. Surely He could have chosen an apostle from a more respectable occupation. To answer this we need only to consider our own selves. Why did God elect you for salvation? What drew God to you? Rest assured it was not because you are good or better than anyone else. God in His own sovereign will chooses who to save. The Lord Jesus clearly saw in Levi a man who would be loyal and faithful. Someone who could be trusted with the important duties of being one of the apostles. I think that his record keeping skills as a tax collector were very useful to him when it came to writing his gospel.

As He passes, the Lord Jesus calls out to Levi and tells him to follow Him. Levi we are told immediately gets up and follows. In doing so he was making a decisive and permanent break with his old life. He was giving it all up to follow Jesus. That is the kind of follower Jesus desires. Someone who is prepared to sacrifice all to follow Him.

Some time later Levi throws a party at his house. Perhaps Levi wanted to say goodbye to his old life and old friends. Or maybe he wanted them to join him in celebrating his new life as one called by Jesus. Levi's house then was full of tax collectors and other "sinners" alo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As I said last time to be invited to eat at a person's house was a significant thing in the near east. When you shared food with someone it meant that you accepted their offer of friendship.

When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aw Jesus eating with such a disreputable bunch of "sinners" they were shocked and offended. They could not believe that a man who claimed to come from God could do such a thing.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Pharisees lived by a very strict and binding set of laws and traditions. The Lord Jesus of course was not bound by their laws and this tension would cause repeated conflict between them.

The scribes and Pharisees ask Jesus disciples why He eats in such company. When the Lord overhears them his answer is both simple and yet profound. He is exactly where He needs to be. As a doctor, or a physician of the soul he needs to be where the spiritually sick are located.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inners" at Levi's party was their relationship to righteousness. The Pharisees believed that due to their highly "moral" lives they were already righteous before God.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doing what needed to be done to be right before God. Because of this they had no need for a spiritual doctor. The sinners at Levi's house however recognised, or acknowledged their sin. They understood that they were sick (sinners) and that was why Jesus was there to cure them of their sins. That is why a vital component of the gospel is telling people that they are sinners. You cannot seek after a cure unless you know that you are sick.

Today we will again see the Lord Jesus challenged by the Jewish authorities for His lifestyle and practices. But before we do let us pray.

오늘의 성경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세리인 레위를 정탐하셨습니다. 레위는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셨을 때 레위는 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갈릴리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따라 위치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중요한 대로는 다마스쿠스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이스라엘 해안을 따라 이집트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중요한 무역로이자 로마인들이 부과한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세금 징수원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생활에 참여에서 배제되고 배제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정복

하고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위해 돈을 모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쁠 것이지만 세금 징수원은 종종 무자비하고 부정직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들에게서 빼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왜 누군가가 세금 징수원이 되고 싶어하는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탐욕입니다. 세금 징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유리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계약을 맺고 세금 징수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리의 명성을 고려할 때 주 예수님을 레위에게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더 존경받는 직업에서 사도를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신을 끌어들였습니까? 당신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좋기 때문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할지 선택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레위에게서 충성과 충성을 다할 사람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 세금 징수원으로서 그의 기록 보관 기술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에게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실 때 주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며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바이는 곧바로 일어나 따라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오래된 삶과 결정적이고 영구적인 단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얼마 후 리바이는 집에서 파티를 엽니다. 리바이는 옛 삶과 옛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부름 받은 새 삶을 함께 축하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레위의 집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다른 “죄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근동에서는 남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음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것처럼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들” 무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매우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일련의 법과 전통에 따라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그들의 법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긴장은 그들 사이에 반복적인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의사 또는 영혼의 의사로서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레위의 당에 있는 “죄인”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의에 대한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도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영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집에 있는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병들어서(죄인)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 그곳에 계셨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의 생활 방식과 행위에 대해 유대 권위자들에게 도전받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18 The disciples of John and of the Pharisees were fasting. Then they came and said to Him, “Why do the disciples of John and of the Pharisees fast, but Your disciples do not fast?”

Mark spends chapter two verse one to chapter three verse six detailing five occasions in which Jesus provokes controversy. This section of his gospel is often labelled as the “five controversy stories.” They highlight a progression in the intensity of the hostility towards our Lord and saviour. People often wonder why Jesus was such a controversial figure. Why did He provoke such anger especially from the Jewish leaders? The answer is that Jesus represented something radically new. Change is often difficult for people to accept. We don't like change, and we don't like the agents of change. Also very importantly the Lord Jesus was not tied to the traditions and customs of the past. He saw through the often pointless traditions and laws of the Pharisees which were not designed to help people but had simply burdened them. The Lord Jesus held these traditions up to light so that people could see and question them. This naturally made Him an enemy of those who wanted things to stay the same.

We concluded our study last time with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hocked at the company Jesus was keeping. They were horrified that a religious leader would socialise and have friendships with openly “sinful” people. Here some of the disciples or followers of the Pharisees and John the baptist come to Jesus with a question. Their question related to the conduct of Jesus, and in particular of His followers. Basically they wanted to know why His disciples were having such a good time. And in particular they wanted to know why weren't Jesus' disciples fasting. After all John the baptist's disciples were fasting and so were the Pharisees. There was probably a good reason for John's disciples to be fasting. John by this point in history was in prison. It would be natural for his followers to pray and fast in the hope that God would intervene. They may also have fasted because it was an act associated with repentance, a message that John had preached.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fasting. You can read about fasting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In fact it is mentioned around 70 times throughout Scripture. Its frequent occurrences mean that it is something of considerable importance. Both testaments highlight the value of fasting. Fasting may be defined as abstaining from food or drink in order to focus on prayer and seeking God's will. Succinctly put; fasting is denying the flesh in order to strengthen the spirit.

In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two types of fasting, private and public. Private fasting was as the name suggests something undertaken by an individual for a particular purpose. Generally speaking fasting was associated with mourning, sickness, repentance and submission to God.

When it came to public fasting the Old Testament called for it to be practised on only one special occasion. People were to fast on the Day of Atonement (Yom Kippur). Following the Babylonian exile four other yearly fasts were observed. There were occasions when special fasts were called for by leaders. These times of fasting were dictated by circumstances such as events of national significance such as a battle or war, or realizing that the people were moving in a direction away from God.

However by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were fasting twice a week, on Mondays and Thursdays. This practice had developed as part of their tradition and was not prescribed in scripture. It is this kind of fasting that is in view here. Jesus as a law abiding Jew would have kept the fast commanded in scripture.

Fasting if done properly and with the right intent is a good thing. It can form an important part of worship.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e are temporarily denying ourself something that may act as a barrier between us and God. We are refocusing our mind and thoughts on God and taking it off another distraction. That in itself can be a very good and beneficial thing.

The issue with the Pharisees however was that many of them were fasting with the wrong intent.

They did not do it in order to draw closer to God. Instead they were doing it to demonstrate to others how godly and pious they were. This is why they often made a public display of what they were doing. They would walk around town with gloomy expressions and neglect their appearance. They wanted people to notice how much they were suffering for their righteousness. Actually they really wanted people to approach them and ask them why they looked in so much discomfort. Then they could launch into a long speech about how righteous they were in abstaining from food. I'm sure that I don't need to tell you that this is not the purpose of fasting.

마가는 2 장 1 절에서 3 장 6 절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논쟁을 일으키시는 다섯 가지 경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복음서의 이 부분은 종종 “다섯 가지 논쟁 이야기”로 분류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님과 구세주에 대한 적대감의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가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인지 의아해합니다. 왜 그는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변화의 주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이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담을 주는 바리새인들의 종종 무의미한 전통과 율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전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무리에 충격을 받아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공공연히 “죄 많은” 사람들과 교체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 중 몇 명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행실, 특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행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왜 그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이 시점까지 존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인 회개와 관련된 행위였기 때문에 금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금식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에 약 70 번 언급됩니다. 그것의 빈번한 발생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구약 모두 금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음식과 음료를 삼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놓여; 금식은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육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사적 금식과 공적 금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개인 금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애도, 질병, 회개 및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개 금식과 관련하여 구약은 단 한 번의 특별한 경우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죄일(욥 키푸르)에 금식해야 했습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매년 다른 네 번의 금식을 지켰습니다. 지도자들이 특별 금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금식 시간은 전쟁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는 상황과 같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 금식했습니다. 이 관행은 전통의 일부로 발전했으며 성경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금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명령한 금식을 지켰을 것입니다. 적절하고 올바른 의도로 단식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다른 주의 산만함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좋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건한지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마을을 돌아 다니며 외모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지 물어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지 긴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19 And Jesus said to them, “Can the friend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y have the bridegroom with them they cannot fast.

To answer the question posed Him about fasting Jesus compares His disciples with the bridegroom's friends at a wedding. He of course is playing the role of bridegroom. John the Baptist had already announced that Jesus was the Bridegroom (John 3:29), and our Lord had performed His first miracle at a joyous marriage feast in Cana (John 2). Although wedding customs vary around the world eating and drinking play an important part of all wedding rituals. A wedding is a time of joyful celebration. Part of occasion we enjoy most is eating good food. Certainly this is the case in Korea. Following the marriage ceremony all the guests move into the buffet to eat. We've spoken before about how weddings in ancient Israel were lengthy, joyous events. Often up to a week would be spent eating, drinking and making merry. It was most definitely not a time to be fasting. What Jesus is really saying is that there is a time and place for fasting, but it's not at a wedding.

When you are attending a wedding and in the presence of the bridegroom it is a time for being happy and joyful.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f the bridegroom is a close personal friend. We celebrate with them as they embark on what we hope will be a fruitful and wonderful married life. Jesus' message was bold and clear. He was telling everyone that He was not like the Pharisees or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He was the Messiah, the bridegroom to the people of God. Wherever He was it was appropriate to have the joy we associate with weddings.

There's an important lesson for us to take from this. Christians can sometimes be rather dour and joyless people. Of course personalities vary and people may be enduring difficult life circumstances. But it is my strong belief that Christians in most cases should be full of life and joy. If you have a long sad face and never laugh or look happy you are hardly a good advert for the Kingdom of God. Remember we are children of Go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 the gift of eternal life to look forward to. We have every reason to be joyful, positive people. The Pharisees wrongly thought that God was pleased when they suffered and endured misery. God blesses His children with good things and He expects us to be grateful and enjoy our lives here on earth. Lets read on.

예수께서는 금식에 관해 그에게 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한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과 비교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신랑 역할을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선포했고(요 3:29), 우리 주님은 가나의 즐거운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요 2). 결혼 관습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결

혼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혼식은 즐거운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기는 경우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결혼식 후 모든 하객들은 뷔페로 이동하여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얼마나 길고 즐거운 행사인지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최대 1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곤 했습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었음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금식할 때와 장소가 있지만 결혼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신랑 앞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신랑이 가까운 친구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결실을 맺고 멋진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담대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지 않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랑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결혼식과 관련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다소 소심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양하고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결코 웃지 않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좋은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 충만하여 영생의 선물을 고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는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즐기기를 기대하십니다.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20 But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in those days.

Jesus here hints at His anticipated death, resurrection and return to the Father's side. At this stage in their training the disciples would not have fully understood what Jesus was alluding to. The point He is making is as follows. Whilst He, the Messiah is on earth and in their presence it is not appropriate to be fasting. The purpose of fasting remember is through this spiritual discipline to draw nearer to God. When God is with you in person you don't need to fast to be any closer to Him. However in the future when He has left them and returned to the Father it will be appropriate to spend time fasting. Let us move on.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예상되는 죽음, 부활, 아버지 곁으로의 재림을 암시하십니다. 훈련의 이 단계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암시하신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메시아인 그분은 이 땅에 계시고 그들의 면전에서 금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억의 목적은 이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당신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그분이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금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21 No one sews a piece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r else the new piece pulls away from the old, and the tear is made worse.

Jesus here is providing an answer as to why fasting is not appropriate. He cleverly does this through the use of two parables that would have been instantly relatable to the original readers of the gospel. To us reading them today we may need to have them explained. I will do that shortly. What Jesus is

doing in verse 21 and 22 is demonstrating the incompatibility of the old and the new covenants. The “old” is the Judaism as practised and taught by the Pharisees. The “new” is the Christian faith that would come through Christ's teachings and the church. In essence Jesus is telling His listeners that His mission and work was entirely new. It would not be added onto the law or tradition of the Pharisees. Their approach to God through the observance of strict laws and man-made traditions was now over. It was in no way compatible with the new way to approach God that Jesus ushered in.

Let us then look in more detail at this first parable. We are to imagine that a hole has appeared on an old piece of clothing. Let us say a shirt. The hole cannot be sewn together so a patch is needed. What kind of material will we use for our patch? Today we could find a piece of synthetic material that would not shrink. But in Jesus day such material did not exist. So let us say we find a new piece of linen that matches the colour of our shirt. It would serve as a good patch. However because the new material has not yet been washed it is liable to shrink. Therefore if we use it for our patch when we wash it the patch will shrink and create an even bigger hole in the shirt. The irony here is that instead of repairing the old the new will actually destroy the old.

So Jesus is saying that He has not come to patch up Judaism. Rather He has come to replace it with something new and better.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원래 독자들과 즉각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이것을 영리하게 수행합니다. 오늘 그것을 읽는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곧 그렇게 할 것이다. 21 절과 22 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옛 것”은 바리새인들이 실천하고 가르친 유대교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를 통해 오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사역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청중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에 추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과 사람이 만든 전통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과 결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비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옷에 구멍이 생겼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셔츠를 말해보자. 구멍을 함께 꿰맬 수 없으므로 패치가 필요합니다. 패치에 어떤 종류의 재료를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축되지 않는 합성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는 그러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셔츠의 색상과 일치하는 새 린넨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패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 아직 세탁을 하지 않은 신소재로 인해 수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세탁할 때 패치용으로 사용하면 패치가 줄어들어 셔츠에 더 큰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오래된 것을 수리하는 대신 새로운 것이 실제로 오래된 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고치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려 오셨습니다.

22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r else the new wine bursts the wineskins, the wine is spilled, and the wineskins are ruined. 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Today of course wine comes in glass bottles. But in the ancient world wine was stored and transported in animal hide sacks. Most commonly goat skin was used. They served as very effective ways to keep wine.

Now new wine was always put into new skins.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New skins possessed a degree of flexibility.

New wine you see continued to ferment inside the skins, it would release carbon dioxide as it matured. This release of gas caused the wineskin to stretch and expand. However if you tried to put new wine in old wineskins you were in for a disaster. Old wines skins became rigid and inflexible. They had already been stretched to their limit. They could no longer expand to handle the pressure of the newly fermenting wine. So if you put new wine inside they were liable to burst and the delicious new wine would be lost and the wineskin ruined.

So once again Jesus is telling His hearers that the old and the new systems are incompatible. You can't pour the Christian gospel into the "wineskins" of Judaism. So let us conclude here by summarising the Lord Jesus' message.

- (1) Because the new had arrived in Jesus the old was no longer appropriate.
- (2) The new cannot simply be stitched or pasted onto the old. They are incompatible.
- (3) The old cannot be blended with the new. Like the wineskins it would end up destroying both.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fourth controversy story. The issue over the Sabbath.

오늘날 와인은 물론 유리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포도주는 동물 가죽 자루에 저장되고 운송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염소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보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넣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킨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새 포도주는 껍질 안에서 계속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것입니다. 이 가스 방출로 인해 가죽 부대가 늘어나고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포도주 껍질은 딱딱하고 유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새로 발효되는 포도주의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넣으면 터지기 쉬우며 맛있는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찢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옛 제도와 새 제도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포도주"에 기독교 복음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1) 예수 안에 새 것이 들어왔으므로 이전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새 것은 단순히 옛 것에 꿰매거나 붙일 수 없다. 호환되지 않습니다. (3) 옛 것은 새 것과 섞일 수 없다. 포도주 가죽 부대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결국 둘 다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뜻 네 번째 논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Do we need a period of fasting?

Most commonly when we think about fasting we think about depriving ourselves of food or drink for a period of time. However we can extend the idea of fasting to include the temporary giving up of anything in order to better focus our thoughts on God. Our hobbies or pastimes are valuable and important. We all need time to unwind and relax. Provided we are not doing something immoral we have liberty to spend our free time as we wish. However we should be honest with ourselves and admit that at times we can get too caught up in our leisure activities. Perhaps a fast would be

helpful. So if you spend a lot of time using your cell phone, playing golf, watching TV, reading books or painting pictures you could take a fast from doing this in order to focus on God. For a short time take a break from doing these things and instead seek after God either through prayer, bible reading or meditating on scripture. I think you would be blessed by doing so. Here are some of the potential benefits.

1. Fasting and prayer can help us hear from God.
2. Fasting and prayer can reveal our hidden sin.
3. Fasting and prayer can strengthen intimacy with God.
4. Fasting and prayer can teach us to pray with the right motives.
5. Fasting and prayer can help build our faith.

우리가 금식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무엇이든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금식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나 오락은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 시간을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며 때때로 여가 활동에 너무 몰두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금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잠시 쉬고 기도나 성경 읽기,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입니다.

1.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금식과 기도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5.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We cannot mix the old and the new

The real tragedy of the scribes, Pharisees and their disciples was that they failed to appreciate that their traditions were ultimately empty and useless. They belonged to the past. An era in which human beings sought to approach God through animal sacrifice. Now a new era was upon them. A time when God sought to reach human beings through the sacrifice of His Son. Instead of recognising this they stubbornly clung to their traditions. Some Christians today are not so dissimilar. They want to cling onto traditions or ways of doing things. Often ways that perhaps once were meaningful but over long use are now shrivelled and dead.

I grew up in a church that was tied to a very dry and lifeless way of worship. It was full of people with long grey faces who wondered why no new people wanted to join the church. What a shame, what a waste. Sunday worship should be electric. You should be enthused and excited to come here each week.

Also at times we are guilty of trying to graft Jesus onto our lives. It's rather like the shirt we spoke previously about patching. Jesus is not a patch that we stick onto the old shirt of our lives. Equally we don't try to pour the life changing blood of the saviour into the dead brittle wineskins of our hearts. What are we thinking? We want Him to be with us but we don't really want to stop doing the things that characterised our old lives. I can still go here, or do that even though I am now a

believer. No, When we confess, repent and put our faith in Christ alone for our salvation we need a whole new shirt and a whole new wineskin for a heart. When the Holy Spirit enters us we are born again and renewed. Let us never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we can mix the old and the new.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참된 비극은 그들의 전통이 궁극적으로 공허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속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시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하고자 하셨던 때. 그들은 이것을 인식하는 대신에 그들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고수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나 일을 하는 방식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식이 이제는 쪼그라들고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매우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예배 방식에 묶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긴 회색 얼굴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주일예배는 전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주 이곳에 오는 것에 열광하고 흥분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접붙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패치에 대해 이야기한 셔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낡은 셔츠에 붙이는 패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바꾸는 구세주의 피를 우리 마음의 죽은 부서지기 쉬운 가죽 부대에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옛 삶을 특징짓는 일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신자인데도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둘 때 우리는 마음을 위한 완전히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둢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